

[ 새봄 기층 탐방 ]

# '30살' 된 여성협회, 젊은 간부진으로 힘찬 새 출발



협회 조정화 회장

올해는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한해다.

근년대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는 협회 제7대 회장 조정화의 인솔하에 끊임없는 진취정신을 발양하여 길림시부녀연합회로부터 길림시 3.8 홍기단체, 길림시인민정부로부터 민족단결모범선진단체, 중국사회조직평가기구의 4A급 단체, 길림시와 길림성 부녀연합회에서 지정한 '녀성의 집' 등 영광을 따내어 길림시 조선족 민간단체 중 가장 우수한 단체중의 하나로 인정받았다.

협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해 조정화 회장은 임기 10년간 협회가 걸어온 길을 회고하면서 감개무량해했다.

2011년 조정화가 회장으로 부임하던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는 활동실도 없고 활동 경비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활동실 마련에 동분서주하던 시절

2010년 조정화는 과로로 지친 몸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단호히 길림시중신려행사 한국부 부장직을 내려놓았다. 몸도 추스리고 여가생활도 즐길 목적으로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임화와 동시에 협회 경비 지원금으로 통 크게 돈 1만원도 들여놓았다. 협회 무용수들이 변변한 무용복이 없어서 예술절 행사 무대에 나갈 걱정을 안고 있던 차 조정화가 내놓은 돈은 크게 은을 내었고 나머지 7천원은 나중에 요긴하게 활동실 임대액에 쓰였다.

이듬해 회장으로 당선된 조정화, 몸을 추스릴 새도 없이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 협회는 사무실도 없었고 무용연습



농악무 무대를 마친 협회 예술단 회원들

을 할 마땅한 장소도 없어 떠돌이 신세였다. 여름철 시원한 강다리 아래를 찾아서 춤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마저 임자가 있는 곳여서 밀려났다. 그때의 그 서러움, 좌절된 심정을 누가 알랴!

자책 힘으로 사무실을 마련해야겠다는 굳은 집념으로 조정화와 간부진성원들은 다리가 아프게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니다가 결국 민가 한곳을 임대해 드디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보다 조건이 월등히 좋은 100평방미터짜리 사무실을 임대해 마음 편히 사용중이다.

또 길림시 조선족 집거지인 강만로 부근 3개의 사회구역과 손을 잡고 사회구역의 넓직한 공동활동실을 협회 각 분회에서 돌림으로 사용하고 있다.

### 대형 공연 행사에 빠지면 안되는 감초

예로부터 조선족은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민족으로 소문이 높다. 길림시의 각종 행사 무대에서 늘 곱게 조선족 전통복장차림을 한 조선족여성협회 예술단 대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

퐁피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길림시정부의 공식 행사 하나로 꼽히는 길림시 조선족 새봄맞이 문예공연 무대에 올라 박수갈채를 받았고 뒤이어 길림시백성음력설야회 무대에도 당당히 올랐다.

"길림시백성음력설야회에서 가무단의 문예전공자들과 나란히 선 민간단체는 저희 협회 밖에 없다는 걸 줄이야 알았어요. 가슴이 뿌듯했죠." 39명의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 농악무팀이 무대에 올라 조선족 전통무용을 선보였는데 농악무의 하이라이트 상모 돌리기가 등장하자 길림시당위 서기

호빈과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갈채가 오래오래 터졌다.

올겨울 길림시정부는 방설경제 홍보차 다양한 문예행사를 조직했는데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는 연이어 9차 강도높은 무도공연을 원만히 소화했다.

협회에서 꾸리는 합창단, 통소반, 장고반 등 각종 취미반과 길림시조선족중요예술관의 각종 무도학습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실력이 늘어 오늘날 각종 행사 무대에 당당히 서게 되었다고, 부단한 학습과 노력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조정화 회장은 총결정한다.

협회 서예반 회원들의 서예 수준도 일취월장, 길림시와 전국 각종 서예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지난해 길림시정부에서 주최한 백성서법전에서 본 협회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장 반벽강산을 도배했다.

### 공익활동에 앞장서는 협회

2014년 10월 15일에 설립된 공익훈인마당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조선족 미혼청년남녀들을 상대로 봉사를 제공하는 협회의 공익 훈인 플랫폼이다.

평소에는 매주 금요일을 훈인소개 봉사일로 정하고 협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현장 업무를 진행하며 또 매년 10월 5일에는 전세계 조선족 미혼청년을 상대로 친목회를 개최하는데 조선족사회 각계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지금까지 수십쌍의 커플을 탄생시켜 당사자들과 부모들로부터 감사패

를 받았다.

길림시회소학교를 상대로 2017년부터 매 학기마다 가정이 곤란한 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왔다. 회소학교 고난학생들의 가정에 위문을 가서 쌀과 기름 그리고 전기밥솥같은 주방용품들도 지원했는데 회원들 모두 너나없이 동참했다.

길림시조선족중학교에 장학금을 설치하여 품행이 우수한 학생들을 상대로 2만 2,000원을 지원했다.

영길현 특대홍수에 2만 7,000원을 모금하여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인원을 조직하여 홍수피해 복구에도 동참했다.

코로나 발병 초기 무한에 만원돈을 모금하여 지원했으며 코로나 방역에 수고 많았던 길림시 영창, 신탄 등 사회구역 일군들을 위문하고 위문물품들을 전달했다.

전체 회원들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나라 사랑을 앞세우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의무를 리행하며 협회 회원으로서 협회에 충성한다는 관념을 수립했다.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바로 서고 선행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 회원들은 항상 밝은 모습, 생기 가득한 모습이라며 조정화 회장은 흡족 반, 자랑 반이다.

길림시 조선족 여성 156명이 한 가족이 된 협회, 설립 30주년이 되는 퐁피해를 맞이하면서 젊은 간부진을 출마시켜 협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힘차게 나아가갈 예정이라고 조정화 회장은 전했다. / 차영국기자



오늘 안해는 나에게 누르끼레한 털모자를 사주었다. 털모자를 보는 순간 동년의 이왕지사가 구슬알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의 소시적은 비록 생활은 궁핍했으나 황금빛으로 물든 동년이었다.

나의 고향은 교하에서 동쪽으로 30킬로미터 떨어진 두메산골이다. 창령자를 따라 내리굽은 지렁이같은 신작로를 내리면 마을이 나타난다.

양지바른 언덕 우에 자리잡은 아늑한 마을 앞은 신작로이고 신작로 앞에는 넓은 가야가 유유히 흐른다. 강남쪽에는 논밭이 펼쳐졌고 무연히 펼쳐진 논밭 주위에는 울울군산이 겹겹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그야말로 한쪽의 산수화이다.

봄이 되면 강에는 메기, 붕어, 비둘치, 모래무지 등이 육질거리고 강가는 동네 아줌마, 처녀들의 빨래터요, 여름에는 애들의 물놀이터였다. 가을이던 앞에는 황금파도가 넘실대고 마을을 두른 병풍은 불타오르는 노을을 방불케 했다. 겨울이 되면 앞강은 스케이트장, 썰매장이 되었다.

겨울이 짙어감에 따라 눈이 내리면 강판은 우리들의 축구장으로 변신한다. 땀뻘바람이 분을 격정할 것 무었이라. 사천분지처럼 폭 꺼져내린 강판은 마을을 방패막으로 가리워져 있다.

버드나무 두대를 꺾어 랑쪽에 알맞

### [ 길림지역 문화코너 ]

## 내 편

김홍운

춤하게 꽃으면 꽃문이 된다. 축구공이 없으면 얼음덩이로 대응한다. 그해 겨울은 무지무지 추웠다. 어머니는 큰맘 먹고 나에게 3월 50전짜리 황동개 털모자를 사주었다. 아무리 고약한 날 써서라도 그 모자를 쓰면 얼굴부터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친구들과 신나게 뽕을 차게 되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순돌이가 나에게 뽕을 넘겼다. 내가 뽕을 물고 꿀문 가까이 갈 무렵 개뽕이가 다리를 거는 바람에 나는 비칠거리며 안간힘으로 자랑해 다시 순돌이에게 공을 넘겼다. 이제 숫! 하면 영낙없이 끝이다. 헌데 이때 개뽕이가 순돌이를 막아서며 다시 뽕방을 놓는 바람에 순돌이는 하는 수 없이 뽕을 날래게 빼서 공을 다시 나에게 넘겼다. 나는 쉽게 숫을 날렸다. 꿀문과 가깝고 또한 각도가 좋았기에 문지기도 어찌는 수가 없었다.

꿀! — 개뽕이는 트집을 잡고 나의 개털모

자를 벗겨 공처럼 차고 다녔다. 새 모자는 눈범벅이 되어 불품없게 되었지만 그냥 굴리고 다녔다. 내가 앉아서 대성통곡해서야 겨우 나를 뒤로하고 가는 것이었다.

겨울의 해는 토끼꼬리만 해서 오후 3시간 넘어도 태양은 서산마루를 향해 부지런히 가고 있었다. 나는 땅거미에 가뭇게 그늘려 영영 울며 집에 들어갔다.

어느때 같으면 또 훈계가 한사발이었겠지만 오늘날은 어머니께서 정색해서 물었다. "왜? 또 누가 때리더니?" 나는 흑-흑-흑-흑하며 말했다. "개뽕이가 내 모자를..."

"뭐? 또 개뽕이가..." 어머니는 화가 나셨다. 예전에는 머리가 터져 피를 흘리며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데 개가 때리더니? 내가 먼저 집적거렸잖지..." 라고 하시면서 나만 꾸짖기에 문지기도 어찌는 수가 없었다.

또 얼굴에 다닥다닥 피딱지가 앉도록 곰보가 되어 들어와도, 코피가 터

져 선지피를 줄줄 흘리며 집에 들어섰을 때도 어머니는 나만 나무라면서 훈계하셨다.

하나 그날만은 나를 앞세우고 개뽕이네 집으로 향했다.

정주간에 들어섰다. 호롱불도 없이 정주간은 캄캄한데 하얀 길은 안개처럼 자욱했다. 다만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이 벽구석을 비추고 있었을 뿐이다.

어머니는 "개뽕이 어디 있나? 어서 이리 나와. 내 오늘 요정을 널 테다." 라고 소리쳤다.

개뽕이는 방 북쪽 기둥 뒤에 숨었다. 어머니는 개뽕이 어머니에게 샅대 질해했다. "무슨 애를 그따위로 키우노? 큰아들을 콩밥 먹이더니..."

개뽕이 엄마는 우리 엄마 꾸짖음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목석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자식봉사를 잘하라고요..." 라고 하시고 나서 나를 끌고 집문을 나섰다.

"광당!"

문소리와 함께 "개뽕아, 내가 제명에 못살아. 억-억-" 하는 울음소리가 우리 등뒤를 때렸다.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주었다. 딱 한번 내 편이 되어주신 어머니, 그 일은 어언 반세기를 훌쩍 넘겨 60년이 지났지만 그냥 내 머리속에서 맴돌고 있다.

## 길림자동차 남아메리카주로 첫 진출... 콜롬비아에 택시 100대 수출



최근 제1자동차길림자동차유한회사는 남아메리카 콜롬비아에 인민폐 총 570만원에 달하는 삼아(森雅) R7 택시 100대를 성공적으로 수출함으로써 제1자동차길림자동차의 남아메리카주 시장으로의 첫 진출을 실현했다.

제1자동차길림자동차유한회사는 구조조정 이후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자영업 수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회사는 콜롬비아와 연간 500~1,000대의 택시 맞춤형 주문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와 동시에 제1자동차길림자동차유한회사 산하의 길림자동차유한회사도 로씨야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년초 이 회사는 제1자동차길림자동차유한회사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로씨야의

수출 수주에 성공했다. 3월말에는 1차 상용차 100대가 교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시장에서 제1자동차길림자동차유한회사의 전략적 배치가 점차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길림시의 여러 부서가 련동하여 기업의 수출을 보장해준 덕분이다.

최근 몇년간, 길림시상무국은 길림 세관, 세무, 금융 등 여러 부서의 련합업무 체계를 형성, 길림시 당위와 정부의 업무 배치를 지속적으로 관철 리행하고 진정으로 기업의 뒤심이 되어 주동적으로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기업을 추천하여 각종 국제 대형 전시회에 참가하게 하면서 수출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 길림시방송국

## 길림시 강남공원 두견화 활짝...봄이 왔어요



두견화는 우리 나라 10대 명화의 하나로써 그 향기와 자색으로 자자하다. 3월은 꽃을 감상하는 좋은 시기이다. 길림시원림관리센터 강남공원은 3월 5일부터 두견화 꽃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온실에는 금수천리, 만자천홍,

봄꽃대지 등 8곳의 명소를 설치했다.

길림시원림관리센터의 소개에 따르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두견화는 자강의 정신을 대표하며 행복과 행운을 기원한다고 한다. 두견화 꽃잔치는 25일까지 이어진다.

춘삼월에는 강남공원 두견화 구경으로 봄을 느껴보자.

/ 길림일보

## 길림시 이 학교 인공지능교육기지 명단에 입선

최근, 교육부가 공포한 중소학교 인공지능교육기지 명단에 전국 184개 학교가 지정된 가운데 길림시제1중학교 등 길림성의 6개 학교가 명단에 들었다.

길림시제1중학교 이외의 기타 길

림성의 5개 학교로는 동북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길림성실험중학교, 장춘시실험중학교, 장춘자동차경제개발구제2실험학교, 사평시제1고급중학교이다.

/ 강성일보